01 목회권면

풍성한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수요예배, 새벽예배 안내

수요예배(오후 7시), 새벽예배(오전 6시)가 현장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03 주일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예배실 좌석 수의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광주제일명성교회' 검색)

04 교회김장

김장담그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봉사와 시간별 봉사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 남·여, 담당: 국영숙 권사(010-3713-1338)

날짜: 11월 20일(금, 오후 1-5시), 21일(토, 오전 8시-오후 2시)

05 온라인 교회학교

- ① 유치부: 카카오톡(오전 11:30)
- ② 초등부: 앱 ZOOM(줌, 오전 11시)
- ③ 중고등부: 앱 DUO(듀오, 오전 9시)
- 실시간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06 피택자 훈련

매 주, 주일 오후에 제 2기 항존직 피택훈련이 '앱 DUO'로 진행 중입니다. 모든 교육과정 중에 주님이 인도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7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

코로나 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한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가 11월 30일(월)로 마무리 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권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결혼 : 이호일 성도(신부 : 황창숙)

2020년 11월 15일(일) 오후3시 동서울웨드빌 1층 그랜드볼룸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장중현

전도사 김상태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11월 15일 7권 46호

* 여 는 찬 양		주 기 도 문			
* 예 배 선 포		인 도 자			
* 찬 송		9장			
* 공동기도문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찬 송		538장			
기 도	노옥숙 권사	오현애 권사	석용문 장로		
교 회 소 식 새가족환영		인 도 자			
서거ㅂㄷ		룻 4:13-17			
성 경 봉 독	국경규 집사	김광재 집사	조은선 집사		
찬 양	윤정민 집사	한진기 집사	강신모 집사		
오늘의말씀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윤호식 목사			
봉 헌 특 순	문명숙 권사	정유진 권사	장의옥 권사		
* 친 교		다 같 이			
* 송 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이어나 조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 오후7시

일	4	투	크 예	배	
양			주님의	사랑	
도			변승지		
경			요 10:14-28		
교			박순영목사		
도			박순영목사		
	양 도 경	양 도 경 교	양 도 경	양 주님의 도 변승: 경 요 10:14 교 박순영:	

			- 1 / 1
찬	양		찬 양 팀
신 앙 고	. 백		사 도 신 경
성 경 봉	녹독	··롬4:19-5:1···	인 도 자
설	교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윤호식 목사
찬	송	·····413장·····	다 같 이
축	도		윤호식 목사
	- 신앙고 성경봉 설 철 찬	-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 교 찬 송	선 양 고 백 ·································

11/16(월)	내하13:1-14:1
11/17(화)	대하14:2-15
11/18(수)	대하15:1-19
11/19(목)	대하16:1-14
11/20(금)	대하17:1-19
11/21(토)	요나서강해

주일 4부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오후1시/본당)

1부 2부 3부 황인순 김만수 정명회 조근석 이선옥 최영식 무지연 조옥순 김정인

■ 성경 봉 독	1부	2부	3부
11/22	이현경	노미정	김유림
11/29	이덕수	진은자	박정미
12/6	이종길	한상준	박정옥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난 주 등 록

■ 대표기도

11/22

11/29

12/6

202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선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곤	장상민	
최병주	윤미란	김완수	이향호	변춘식	조하나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황수흔	
나기해	이워규	신으수	이용찬	정히소	반혜미	

제 목: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빌립보서 4:2-5)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친절히 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철학자인 볼테르는 관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은 인간만이 지닌 덕목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 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서로서로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제1의 자연법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발4.5"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이로 예때에이케스입니다. 에피는 (~대하여)라는 뜻이고 에이코는 (복중하다)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에 대하여 복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숙환" "존화함" "시절함" "너고려우"이라는 뜻입니다.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약점과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도 덕도 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우리 모두의 약점과 실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점과 실수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바울 사도는 한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칭찬 듣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의안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남 의지하고가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같이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도 좋은 모습이 많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해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이가 권리입니다. ★약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중하나가 관용입니다.

지금은 관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는 자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다 보니 사람들 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 다. 그러다 보니 많이 예민해 있는 것이 사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코로 나로 인해 삶의 기반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너무나 힘든 벽돌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 고 착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지리에서부터 관용을 베풀어 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이가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관용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 뿐 아닌 백성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4-달3: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 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가까운 주위부터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께서 분명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 하실 것입니다.

■ 신입조

강예식 김영섭 박장금 오현애 이명호 이선옥 이연수 정기숙 정윤회 조옥순 조용순 채석진 최현숙 함계성 무 명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김영섭 김지영 남기해 문다윗 문명숙 문성우 문지연 박내성 엄만유 윤호식 이복순 이향호 장해중 정선영8 정순희 정윤회 정진숙 정희숙 조숙희 조웅순 진은자 채석진 하나경 한옥희

■ 선교헌금

강예식 김영섭 김학수 이복순 정명희 조옥순 황인순 무 명

■ 주정허금

권영숙 김귀근 김만수 김일곤 김지영 모영자 박인순 변성진 손막동 윤선례 윤정민 이원규 이응창 이종부 이향실 이혜숙 장재욱 정영규 제언희 조근석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 건축헌금

변성진

	축구	탁 구	바둑	족 구	등 산	볼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